

## 海外旅行 ② 見聞記

# 축산의 나라 호주 견문기

김 권 철

〈농림부 중소 가족계장〉

전회에 말씀드린 현황에 한가지 더 추가하여 그곳 농림성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각 주마다 농림성(Department of Agriculture)이 있는데 퀸스랜드주에서는 1차산업성(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이라 부른다. 이들의 기구나 활동은 주법에 따라 동식물방역이나 유통등의 규제 및 국(局) 등도 각기 다르다.

그러나 축산국(주에 따라 명칭이 다른바 Division of Livestock 또는 Livestock Branch 또는 Division of Animal Industry라고 한다)은 물론 낙농국이 별도로 있고 기타 면양국이 있는 곳도 있다. 이곳 축산업중 가장 중요한 가축은 면양이고 그 다음은 고기소, 젖소, 닭의 순서이다.

각 농림성은 성장(省長 : minister)이 있고 그 밑에 차장(이 곳에서는 Director라 부른다)이 있는데 성장(省長)은 정치인으로 정권에 따라 바뀌나 차장은 정권과는 하등 관계없는 행정 공무원이다.

각 주의 농림성은 연방정부헌법에 따라 소속

주 내의 농업발전에 관한 제반시책에 독자적 책임하에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고 임무면은 행정을 비롯하여 시험연구사업과 농촌지도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한가지 특색은 몇 개의 농과대학을 직접관할하고 있다.

농림성 업무중 한가지 특징은 동·식물방역업무로서 모든 방역업무를 연방정부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 즉 소속은 주정부 직원이면서도 활동은 연방정부를 대표하여 행하며 이들의 급료 및 제반 경비는 연방정부가 지불한다. 동물과 식물의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동물검역소와 식물검역소가 분리되어있고 해외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은 물론 주와 주간의 이동에도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성의 조직은 세분화된 계열하에 자기가 맡은 분야에 일가견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타스마니아”주만은 한국과 비슷하게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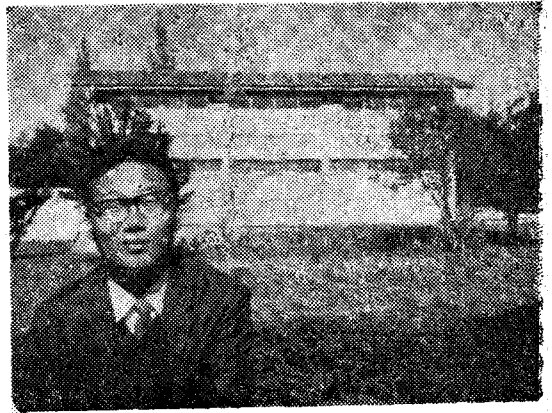
농촌지도사업중 특이한 제도는 농업상담자(Agriculture Consultant) 제도로써 우리나라의 자원지도자와는 성격이 약간 다른 것인데 대개

30~35호의 농가가 경영 및 기술지도를 위해 상담자 한사람을 고용한다. 예를 들면 “A”라는 면 양목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상담자를 찾아가 경영이나 기술면에서 어떤 점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지도받아 가르쳐 준 바에 따라 개선해 나가는 것인데 이들 상담자를 배출하는 전문과목이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처음 서오스트라리아 주에서 부터 시도했던 것으로 지금은 각 주마다 활용하다시피하며, 전라북도 남원군 운봉면에 “국립중축장 운봉지장”으로 설치중인 “한·호시범면양목장”의 관리책임자로 금년 10월 초순에 부임예정인 “핫셀”씨(Mr Hassall)도 이 상담자중의 한 사람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 주마다 주법에 따른 농림성의 활동과 기능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연방정부의 기능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은 호주농업협회(Australian Agricultural Council)가 담당하는데 농산물 유통분야에 관한 조정역할과 함께 2개 이상의 주가 공동활동을 하여야 될 경우에는 본협회가 지침을 내려준다.

코롬보(Colombo)계획에 의하여 호주에 파견되는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 교육과학성(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직원과 면담하며 이들은 약 3일간 호주에 관한 간단한 소개(소위 Orientation)를 하고 1~2개의 명소를 구경시켜주며 호주에 머무를 동안 이들이 모든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영어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영어공부를 시켜주고 하숙이나 방을 주선했 주는가 하면 귀국시 짐을 부치는 것과 비행장에 출영이나 전송도 맡아서 처리하며 생활비 지급도 이들이 담당한다.

전호에 설명한 것처럼 호주의 낙농에 관한 궁금증은 첫째 젖소도입과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 도착하자마자 그곳 교육·과학성직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낙농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가 물어보았다. 사실 “카나다”의 젖소에 비교해 보고 동일한 것이거나, 보다 우수한 것이거나, 가격이 싸다고 한다면 이곳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한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가해서였다. 여하간 이들의 주선으로 도착후 1주일만에 받은 자료가 홀스타인협회(Friesian Cattle Culb)에서 발간된 낙농신문으로서 거기에는 주로 70년 9~



카메라에 있는 한국대사관 앞의 필자. 포프 나무옆이 거의 떨어졌다. 이곳 원산인 나무는 단풍이 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11월에 있었던 12주 기간으로 된 “국제낙농기술 훈련”에 관한 기사였고 그외에 한가지 더 얻은 것은 농업경제청에서 보내온 “서 오스트라리아 주”에서 젖소에다 고기소를 교잡하여 생산된 잠종사육의 수익성조사 결과로서 내가 알고자 하는 낙농에 관한 정보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기에 편지를 보냈더니 2개월만에 온 회신이 “홀스타인협회”나 “뉴·사우스·웨일스주” 농림성 낙농국에 문의해보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나는 우리나라와 전연 모습이 다른 이들의 태도를 느낄 수 있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소 수출 관제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2개월후에 어떤 협회 또는 어떤 기관과 연락해 보라고 회신했다면 그사람 무사했을까? 하는 생각과 이들과처럼 “코롬보”계획에 의한 훈련생이면 그 분야나 똑똑히 하라는 식의 태도가 용인될까 하는 것이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사람에 대하여 무슨 횡재나 덕을 볼까 하는 사고방식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사대사상의 여파인지는 몰라도 외국인의 의견은 무조건 존경하려 들고 친절이 지나쳐 아첨으로 까지 보이게 되는 경우에는 서글픈 감상마저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감정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기왕 이곳에 온 이상에는 이곳 낙농에 관하여 어느 정도라도 알고 돌아오고 싶은 생각에 핫셀씨에게 부탁도 해보고 본 훈련과정인 양

제공부를 할 때 “홀스타인협회” 본부가 있는 “빅토리아주” 수도인 멜본에서 부활절 때문에 장기 주말 (Long Week End)을 맞게 되어 이들과 연락하고 목장도 몇 군데 보았고 몇 가지 자료도 얻었는데 내가 파악한 바는 다음과 같다.

### 1. 호주 낙농의 개요

호주의 낙농가들은 “홀스타인”보다 “저지”나 “건지”를 더 좋아하는 편인데 이유는 생산유의 사유소비율이 많지 않고 버터, 치즈 등의 가공유로 많이 이용되므로 유지함량에 따라 유대(乳貸)의 차가 생기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쇠고기 생산이 젖 생산보다 수입이 좋을 때도 있어 “서 오스트라리아주” 같은 곳은 젖소와 고기소를 교잡하여 쇠고기 생산에 한 몫을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홀스타인은 조숙종이며 고기의 생산량도 많아 숫송아지 비육사업에서 다른 품종의 젖소보다 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노폐우를 육가(肉價)로 처분할 경우도 다른 품종보다 돈을 많이 받게

되어 점차 홀스타인을 좋아하는 경향이라는 것이 안내하던 홀스타인협회원이던 “솔라간”씨의 설명이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장려품종은 홀스타인이므로 나는 여기에 흥미를 집중시켰었는데 호주에 홀스타인이 도입된 시기는 1950년대였고 1914년 7월 “퀸스랜드주”에서 최초로 전국규모의 협회를 조직하였다 한다. 그리하여 1958년에 본부를 “빅토리아주”로 정하였으며 이때 등록된 번식농가가 1,100명이나 되었고 등록부에 기재된 소는 40,000두를 넘고 있었다는데 70년 현재의 실적은 제시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가 현재 수입하는 규격우인 2세정도의 등록된 소두수는 다음과 같다.

기 간	순 증 소 두	부 점 소 두	합 계 두
67.3~69.3	16,936	5,645	22,581
69.3~71.3	19,798	6,600	26,398

(주) 부점소(附點牛)는 다음 협회 관계 소개에서 좀더 상세히 설명코저함.

### 등록우 주별 능력검사 결과

(68~69년)

주 명	유 기(乳期)	년 령	산 유 량	유 지 율	유 지 량
N. S. W (뉴·사우스·웰스주)	120일 300일	2 살	3,900kg	3.6%	142kg
		3 살	4,166	3.6	151
		4 ~ 9 살	4,720	3.6	170
		9 살 이 상	4,538	3.5	157
		평 균(전체)	4,485	3.6	161
Vic (빅토리아주)	120일 300일	2 살			134
		3 살			154
		4 살			163
		4 살 이 상			173
		전 체 평 균	4,230	3.7	156
S.A. (남오스트라리아주)	293일 294 295	2 살	4,321	3.9	168
		3 살	4,772	3.9	187
		4 살 이 상	5,348	4.0	213
Tas (타스마니아주)	120일 300일	2 살	4,404	3.8	167
		3 살	4,922	3.86	199
		4 살	5,158	3.82	197
		5 살 이 상	5,504	3.78	208
		평 균	5,042	3.8	192

주 명	유 기	년 령	산 유 량	유 지 율	유 지 량
W.A (서오스트라리아주)	300일이상		4,866	3.8	186
	300일이하		3,842	3.8	145
Qld (퀸스랜드주)	300일		3,489	3.6	126

임신된 2살 정도의 젖소값은 호주 \$로 약 400 \$ 정도인데 부모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는 소위 R.O.P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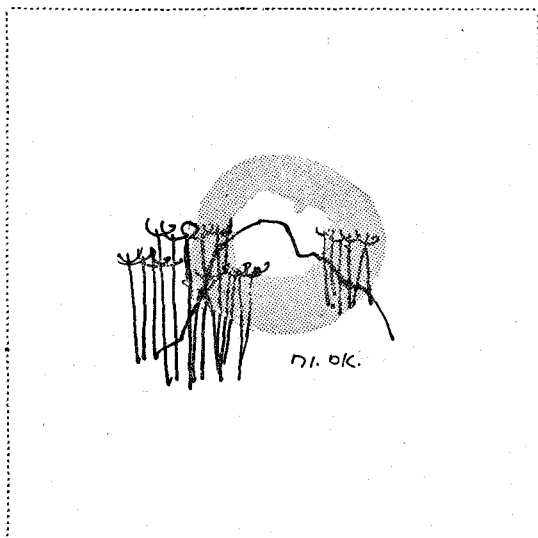
#### 등록우 거래상황

년 도	판매두수	거 래 액	두당평균가격
1968	1,256	AV \$	AV \$
		452,621	395.51
1967	2,035	802,290	393.47
		(36 두 가격)	

본 표에서 본 바와 같이 별로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의 설명으로는 소값은 보통 두당 AV \$ 360 내지 AV \$ 400 정도의 선이라 한다.

이들이 제시한 홀스타인과 다른 젖소품종과의 능력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빅토리아주		뉴 사우스 웨일스주		남오스트랄리아주	
	유 량	유지량	유 량	유지량	유 량	유지량
홀스타인평균	kg 4,100	kg 162	kg 4,457	kg 154	kg 4,951	kg 185
타품종 평균	3,137	154	3,571	145	3,410	162
차	1,233	8	886	9	1,541	23
우 수 성	39%	6%	25%	7%	46%	14%



# 협성가축약품공사

가축예방약 · 치료제 · 사료첨가제  
 소독약 기타 일체 총판  
 서울 청량리역전 오스카극장앞

## 협성가축병원

가금진료전문

서울 청량리역전 오스카극장앞

(92) 7779

(92) 7779